

교만으로 패망한 아마사

찬양해요

찬송가 22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열왕기하 14:3-7

-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 4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 5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 6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 7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욱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말씀 이해하기

유다 왕 아마샤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반역자들을 처단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력을 회복하여 에돔을 정벌하고 아라비아 수도 셀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힘에 돌립니다. 교만한 아마샤는 결국 이스라엘 요아스왕(여호아스왕)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다가 패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으로 시작했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똑같이 수치스런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기쁨과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순수하던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어지고 교만해진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3절)?

▶ 아마샤가 ... 그의 조상 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2. 아마샤왕의 실책은 무엇이었나요(4절)?

▶ 오직 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3.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6절)?

▶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4.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봉사하였던 경험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은 없는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게으름과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